

후지오무로센겐 신사

후지오무로센겐 신사는 후지산 산중에 존재하는 신사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신사입니다. 699 년에 요시다구치 등산로의 니고메(2 부 능선, 해발 1,700m) 근처에 건립되었습니다. 958 년에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쉽게 참배할 수 있도록 15km 정도 떨어진 가와구치코 호수의 남쪽 해안에도 건립되었습니다. 이 두 신사는 각각 '모토미야(본래의 신사)'와 '사토미야(마을의 신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독자적인 신앙 형태인 슈겐도(修驗道)의 수행자들이 계속해서 모토미야를 참배하던 와중, 17 세기 이후 폭발적으로 유행한 후지코 순례자들이 이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1964 년에 후지 스바루 라인이 개통되어 자동차로 고고메(5 부 능선)까지 갈 수 있게 되자 모토미야의 참배객 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참배객들이 거의 사라진 모토미야를 손상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73 년 모토미야는 사토미야 근처로 옮겨졌습니다. 지금은 붕괴가 진행 중인 배전만이 후지산 경사면에 남아 있습니다.

사토미야의 경내

이 신사는 이 지역을 지배했던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린 영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6 세기에는 가이국(현재의 야마나시현)의 영주였던 다케다 신겐이 이곳을 참배했습니다. 지금도 현존하는 사토미야의 본전은 다케다 씨족이 멸망하고 에도 시대(1603~1868)가 시작된 직후인 1612 년에 도쿠가와 가문이 기부한 것입니다. 이 신사는 지붕을 노송나무 꺾질로 된 널로 이고 처마 끝은 둥그스름한 형태로 만든 가라하후 스타일로 아즈치모모야마 시대(1568~1600)의 신사 건축 양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신사는 센겐 신사치고는 특이하게 후지산 정상을 등지고 참배하는 방향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는 후지산의 신이 매일 산을 내려와 이 신사 안에 머문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즈이신몬 문에 있는 동상은 다른 신사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이 조상이 우노시마 섬에 모셔져 있는 여신의 벤자이텐과 친해지자 후지산의 신이 벌을 내려 작게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야부사메

이 신사에서는 매년 4 월 29 일 달리는 말 위에서 화살을 쏘는 야부사메 행사를 개최합니다. 현재 일본 각지에서 행해지는 야부사메 전통은 가마쿠라 시대(1185~1333)의 초대 쇼군이었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1147~1199)가 부하

사무라이들에게 오락용으로 야부사메를 장려한 것에게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사의 야부사메 봉납은 이전에는 산속에 마련된 마장에서 행해졌지만 지금은 신사 옆 공원에서 열립니다.